

BIFAN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BIFAN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21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추천작 9편

PEOPLE 최용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
BIFAN SKETCH 개막 D-1, 부천시청 잔디광장을 찾았다

CULTUREPLEX CGV

세계가 함께 즐깁니다

대한민국 대표 영화관으로 사랑 받아온 컬처플렉스 CGV,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중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터키 등
CGV만의 즐거움과 감동을 세계 곳곳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화끈다!

甜蜜齿间留, 酒醉脑后丢



핑둥~>
레디큐
왔습니다!

解酒糖

郁金活力粉

解酒饮料

레디큐X핑둥 회식지원 EVENT

레디큐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누르면 경품이 팡팡! GO~GO~

원하시는 장소로 레디큐를 배송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레디큐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세요!



READYQ

레디-큐

EVENT

18:10
레드카펫 행사
부천시청 잔디광장

19:30
개막식
부천시청 잔디광장

20:30
개막작 상영
(7호실)

표지사진 백중현

STAFF

발행인 배경록 김충환
제작총괄 장인숙
편집장 주성철
취재팀장 이화정
취재 김성훈 김현수 임수연
객원기자 곽민해
사진 백중현
사진객원 박중덕
디자인 김윤희 신은지
제작 이준용
인쇄 (주)성전기획
부천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판타스틱오피스 (부천시청 별관)
전화 032-327-6313
씨네21 데일리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3층
어울마당 데일리 사무국
씨네21 주식회사 www.cine21.com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11
SK V1센터 E동 1102호
전화 02-6377-0500
팩스 02-6377-0505

〈씨네21〉 정기구독문의 02-2013-1300



PHOTO NEWS

개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스태프들은 폭염도 있고 무대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잔디광장의 커다란 스크린과 줄지어 정렬한 객석에서 개막 전야의 두근거림이 느껴진다. 판타스틱한 부천의 여름, 드디어 시작이다!



장나라

정경호

장르영화에 미친 자들이여, 부천에 모여라

스무 한 살을 맞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

원장 최용배, 이하 부천영화제)가 7월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배우 장나라와 정경호가 개막식 사회 마이크를 잡는다. 개막식에 앞서 오후 6시10분부터 시작되는 레드카펫에는 많은 국내·외 영화인들이 참석한다. 개막작 〈7호실〉의 이윤성 감독, 배우 신하균, 도경수를 포함해 특별전으로 각각 참여하는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감독과 전도연, '부천 초이스: 장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배우 김의성, 부천영화제 초대 프로그래머이자 집행위원장인 김홍준 감독 등이 레드카펫을 밟는다.

총58개국에서 온 289편의 상영작은 액션부터 판타지, 스릴러, 고어, 코미디, 가족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로 포진되어 있다. 올해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전도연 특별전 '전도연에 접속하다'와 신작 〈일급기밀〉을 찍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흥기선 감독의 특별전 '현실을 넘어선 영화:흥기선'도 열린다. 특별전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 판타스틱영화의 거장'에서는 스페인 출신의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감독의 영화 10편을 만날 수 있다. 특별전 '무서운 여자들:괴물 혹은 악녀'에서는 남성 권력을 응징하는 여성 캐릭터를 소재로 한 영화 9편이 준비되어 있다. 영화제는 23일까지 11일간 부천에서 열린다. 김성훈



〈밀양〉

메가토크와 함께라면 재미가 배가!

영화 감상의 훌륭한 가이드가 되어줄 '메가토크'

가 영화제 기간 동안 네 차례 열린다. 감독과 배우로부터 듣는 생생한 현장 비화는 물론, 영화를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전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자리다. 첫 순서는 특별전 일환으로 진행되는 '접속하라 전도연'이다. 이창동 감독과 배우 전도연이 〈밀양〉에 얽힌 생생한 추억담을 전한다. 김혜리 기자의 사회로 14일 오후5시 〈밀양〉 상영 후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다.

다음으로는 여성 캐릭터에 목마른 관객을 위한 자리다. 손희정 평론가, 조혜영 평론가가 '강한 여자, 못된 여자, 무서운 여자'란 주제로 스크린 위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냈던 여성들을 돌아본다. 〈글로리아〉 〈더 빨리 푸시킵, 죽여라 죽여〉 〈캐리〉 〈이어도〉 등 영화제 상영작 네 편을 집중 탐구한다. 16일 오후 5시30분 판타스틱큐브.

기존 프로그램과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공개방송 형식의 메가토크도 준비되어 있다. 팟캐스트 '김혜리의 필름클럽'이 17일 오후8시 CGV부천 4관에서 공개방송을 갖는다. 김혜리 기자와 배우 임수정, 최다운 PD가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bifan.kr>) 참조.

곽민해 객원기자



〈7호실〉

매진작 속출, 서두르세요

예매 오픈과 함께 빠르게 매진된 상영작들이 있다. 개막작인 〈7호실〉을 비롯해 〈어쩌다 암살클럽〉, 〈버드샷〉, 〈데이브 미로 만들다〉 등이 이번 영화제의 인기작이었다. 폐막작 〈은혼〉은 폐막식을 동시 생중계하는 다른 두 상영관까지 순식간에 티켓이 동이 났다. 7월10일 오후5시 기준으로 매진된 상영회차는 총 123개. 온라인 예매 매진작을 관람하고 싶다면 상영 당일 현장예매를 통해 티켓을 구입하면 된다.



〈황당무개 프로젝트〉

놓칠 수 없는 BIFAN 이벤트

의정부고 졸업사진을 방불케 하는 '황당무개 프로젝트'가 올해에도 열린다. 7월14일부터 20일까지 영화제가 열리는 상영관 및 전체 행사구역에서 온갖 캐릭터로 분장한 자원활동가들이 출몰할 예정이다. 영화제 피크 기간에는 틈틈이 부천시청 앞 잔디광장을 체크할 것. 7월14일부터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얼어라 황무박스', '손안에 포토월'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만끽해보자.



〈은혼〉

깜짝 상영작 공개

깜짝 상영작 두 편이 공개됐다. 한편은 〈맛있는 인생〉(2010) 〈내가 고백을 하면〉(2012) 등을 연출한 조성규 감독의 〈실종2〉로, 7월22일 토요일 오후5시 CGV 부천역3관에서 상영된다. 또 한편은 폐막작인 후쿠다 유키치 감독의 〈은혼〉이다. 지난 10년간 일본에서 가장 인기 많은 소라치 히데야키의 개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다. 7월22일 토요일 오후5시 CGV부천역 4관에서 공개된다. 폐막작을 미리 볼 수 있는 기회다.



BIFAN 티켓으로 저렴하게 즐기는 부천 관광

영화제 기간 중 부천 주요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은 영화제 티켓을 제시하면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웅진플레이도시 워터파크는 입장료의 50%를, 부천 아인스월드는 입장료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고, 한국만화박물관과 부천 로보파크는 40% 할인된 가격에 입장할 수 있다. 부천식물원, 자연생태박물관, 부천시박물관(교육, 유류자기, 수석, 활, 옹기)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올해 BIFAN에서 흥미로운 '여성 영화'를 발견해보자

김영덕, 김봉석, 모은영 프로그래머가 이구동성으로 지금 세계 영화계가 약속이나 한 듯이 여성을 내세우는 영화를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부천영화제에서도 비록 같은 섹션에 묶이지는 않았지만 많은 여성 영화를 만날 수 있다. 특별상영 부문의 <깊은 밤 갑자기>, <약녀>를 비롯해 월드 판타스틱 레드 섹션 상영작인 <프리벤지>, <로우>, 그리고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섹션의 <사월의 끝>, <커피 느와르: 블랙 브라운> 등의 영화를 찾아본다면 여성을 주제로 한 나만의 '여성 영화 기획전'을 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김영덕, 김봉석, 모은영 프로그래머(왼쪽부터).

지난 20회를 시작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부천영화제)의 상영 프로그램이 부천만의 뚜렷한 색깔을 강조하며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 성과는 국내 최고의 장르 전문가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김영덕, 김봉석, 모은영 세 프로그래머의 든든한 '취향'이 있기에 가능했다. 이상한 '병맛' 영화를 좋아하고 그런 자신의 취향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들에게서 올해 부천영화제가 자신 있게 내놓은 전체 상영작의 경향과 특별전의 취지 등에 대해 물었다.

글 김현수 · 사진 백종현

병맛, 판타지, 쾌락의 영화를 담았다

김영덕, 김봉석, 모은영 프로그래머

올해 프로그래머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

김영덕 모은영 프로그래머가 2개의 한국 특별전과 한국 영화, 단편영화 부문을 담당했다. 남종석 프로그래머가 북미와 오세아니아, 캐나다 쪽을, 김봉석 프로그래머는 아시아 영화를 담당했다. 나는 그 밖의 여러 나라들, 우간다나 알바니아 등의 영화로 채웠다. 그들 뒤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다.

20회를 치르면서 프로그램 섹션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올해 부천영화제의 프로그램 기획 방향을 소개해달라.

김영덕 먼저 기존 섹션을 유지하면서 풍성하게 꾸리고자 했다. 특별전의 경우, 국내 여러 영화제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배우 전도연을 주제로 한 '전도연에 접속하다'는 특히 전작전으로 꾸리다 보니 정말 준비가 어려웠다.

모은영 이번 특별전이 부천영화제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장르영화에 대한 편견을 깨기위해 생각했다. 전도연 특별전은 배우를 장르적으로 접근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비록 미완성 상영이지만, 고 흥기선 감독의 유작 <일급기밀>(2017)은 사회적인 이야기를 장르적으로 풀어가려 한 시도를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

김봉석 동남아 국가의 장르 영화에 대한 소개에 주력했다.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만드는 장르 영화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는 가깝지만 잘 몰랐던 영화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부천만의 특징이다.

김영덕 우간다, 알바니아 영화도 큰 발견이었다. 최근 남미 영화들의 장르 문법이 눈부시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 걸 보며 놀랐다. 올해 영화제에서 소개되는 스페인어권 영화들은 어떤 영화를 선택해도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추천한다.

올해 신설된 '특별상영' 섹션의 취지도 궁금하다.

김영덕 한국영상자료원 프로그래머로 활동한 모은영 프로그래머가 합류하다 보니까 고전 영화 복원에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다. (웃음) 덕분에 <아키라>(1988), <은하철도의 밤>(1985)과 같은 복원작 상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모은영 복원작뿐만 아니라 영화 구조적으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줄 <옥자>도 가져왔다. 고전에서 최신작에 이르기까지 상영 방식이나 관람 방식 등을 고민할 수 있는 영화를 묶어보자는 취지도 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프로그래머로서 각자가 생각하는 판타스틱의 의미를 이야기 해준다면?

김봉석 영화를 선정할 기준이기도 했는데 판타스틱은 장르적인 재미다. 재미의 기준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장르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예술적 완성도보다는 장르적인 재미를 정체성으로 여기는 영화를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했다.

모은영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판타스틱, 판타지라고 생각한다. 1회 개막작이 '조르주 멜리에스' 단편모음이었던 것을 떠올려보자. 정제된 상상력에서 벗어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는 많은 영화들이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판을 깔았다.

김영덕 판타스틱은 쾌락이다. 모든 이성과 억압을 반대하는 모든 것의 반대말로서 일종의 세계관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도 잘 몰랐던 감독의 새로운 상상력을 발견하는 재미야말로 영화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다.

숨막히게 짜릿한 장르물을 찾아 피약별 속을 헤매는 부천의 관객들이여. 강심장을 자부하는 이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 널 강력한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다. 김영덕, 김봉석, 모은영 프로그래머가 추천하는 아홉 편의 작품을 소개한다.

특명,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프로그래머 3인의 추천작

김영덕 프로그래머



〈누명〉 Strangled
아르파드 소프시츠 | 헝가리 | 120분 | 부천 초이스: 장편

1950년대 헝가리 변두리의 작은 마을 '마르푸'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연쇄 살인 사건을 소재로 삼은 사이코 스릴러다. 젊은 여인이 참혹한 변사체로 발견되고 죄 없는 사람이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살고 있는 와중에도 연쇄 살인은 계속된다. 사건이 미국에 빠질수록 중견 형사와 새롭게 투입된 젊은 형사와의 갈등도 커져 간다. 헝가리 버전 〈살인의 추억〉이라 부를 만하다.



〈어쩌다 암살클럽〉 Kills on Wheels
아틸라 킬 | 헝가리 | 105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줄리카와 바바는 만화가를 꿈꾸는 20대 청년이다. 장애를 가진 두 사람은 하체가 마비된 전직 소방관 루파조프의 강인한 모습에 매혹된다. 하지만 루파조프는 세르비아 갱단에게 암살 의뢰를 받은 인물. 두 청년은 그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애는 결핍이 아니라 다름의 영역이란 사실을 색다른 방식으로 환기시킨다. 관객들을 기다리는 놀라운 반전도 짧지 않은 여운을 남긴다.



〈낮설지만 진실된〉 Strange but True
미셸 립케스 | 멕시코 | 90분 | 월드 판타스틱 블루

환경미화원인 조나단과 예시는 일을 함께하는 동료이자, 사랑하는 연인이다. 도시에서 나오는 엄청난 쓰레기더미를 처리하던 어느 날, 주머니에 현금이 가득찬 시체가 발견된다. 두 사람의 인생은 그로부터 송두리째 변한다. 멕시코시티의 '밑바닥 인생'을 흑백의 서정 안에 녹여낸 작품으로 아름다우면서도 잔혹한 영상미가 돋보인다.

김봉석 프로그래머



〈몬 몬 몬 몬스터〉 Mon Mon Mon Monsters
구파도 | 대만 | 112분 | 부천 초이스: 장편

실대들의 괴물 퇴치기. 고등학생인 이들은 우연히 도시에 출몰한 요괴를 생포하고, 아지트에서 학대하기 시작한다. 주인공 린은 요괴가 나타나기 전까지 학원 폭력의 피해자였으나, 요괴의 등장 후 피해자의 자리에서 벗어나며 새로운 딜레마에 빠진다. 가해자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들처럼 요괴를 괴롭혀야 하는 것이다. 가해와 피해의 구도를 넘어서는 질문을 던지는 판타지다.



〈나는 변태다〉 I Am a Pervert
안자이 하지메 | 일본 | 87분 | 부천 초이스: 장편

밴드 '불합격 통지서'의 유일한 멤버이자 보컬인 주인공. 어쩌다 비주류 포크 가수가 됐고, 결혼도 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욕망이 숨어 있다. 그의 성벽을 아는 어떤 여인만이 유일한 구원이지만 그것조차도 한때의 일탈일 뿐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붕괴할 위기에 몰리자 그의 '변태력'이 폭발한다.



〈여죄수 사소리1-701호 여죄수 사소리〉 Female Prisoner No.701 Scorpion

이토 순야 | 일본 | 87분 | 무서운 여자들: 괴물 혹은 악녀
남성들의 세계에서 살아남아 끝내 복수에 성공하는 사소리의 이야기다. 배신한 연인을 죽이려던 죄로 감옥에 갇힌 그는 강간과 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자신을 지옥으로 내몬 남성들에게 복수한다. 〈수라 설회〉(1973)부터 〈킬빌〉 시리즈까지 여성 중심의 잔혹한 복수극에 큰 영향을 미친 작품. 주연을 맡은 카지 메이코의 스타일리시한 연기가 일품이다.

모은영 프로그래머



〈어둠 밤〉 Behind the Dark Night
심찬양 | 한국 | 117분 |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머 감각과 기발함으로 가득하다. 영화 감상 동아리 '리그 오브 웨도우' 멤버들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롤모델 삼아 슈퍼히어로물을 만들기로 한다. 이름하여 '어둠 밤'(Dark Night)이다. 열정과 꿈만은 원대한 할리우드 키드들의 고군분투기가 포복절도를 유발한다. 심찬양 감독의 단편 〈회상, 어둠 밤〉(2015)의 장편 버전.



〈반도에 살어리랏다〉 I'll Just Live in Bando
이용선 | 한국 | 85분 |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콘크리트 정글 같은 경쟁 사회, 시간 강사 오준구의 하루하루는 고단하다. 그의 꿈은 배우지만,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려면 교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던 중 동시에 찾아온 오디션과 교수직 제안에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 오준구. 하지만 모든 것이 꼬이고 만다. 부조리한 사회를 향한 짙은 풍자와 저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재치 있는 연출이 돋보인다. 2017 안시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초청작.



〈려행〉 Ryeohaeng
임흥순 | 한국 | 86분 |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가깝지만 닿을 수 없는 곳, 북한. 그곳을 탈출해 서울에 오기까지 탈북 여성들의 여정을 담아낸다. 탈북 이유도, 시기도, 직업도 제각각일지언정 한국 사회의 상처를 온 몸으로 마주한 이들의 역사가 스코린 위에 쓰인다. 판타지와 픽션, 인터뷰와 극을 오가는 독특한 형식의 시적 다큐멘터리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 〈위로공간〉(2014) 임흥순 감독의 신작이다.



“아시아 각국의 영화인들이 찾고 싶어 하는 영화제로”

최용배 집행위원장

최용배 집행위원장은 연일 계속된 야근 때문에 다소 피곤해보였다. 개막식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처리해야 할 일이 파도처럼 몰려왔기 때문이라. “상영작 프로그램 책자와 부천 인더스트리 프로그램(BIFAN Industry Gathering) 책자를 마감하고, 개막식에 상영할 영상물을 최종 감수하고, 레드카펫 순서와 개막식 좌석 위치를 정했다. 또, (집행위원장 일정표를 보여주며) 참석해야 할 행사도 일일이 점검하고 있다. 일이 한꺼번에 닥치고 있다.”

올해는 집행위원장으로서 치르는 두 번째 영화제다. 첫 경험이었다던 지난해에 비해 “여유가 생긴 건 사실”이지만, “합류한지 1년 반 만에 영화제 일이 완전히 익숙해진 상태일리는 없다. 올해는 “장르영화 축제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정체성을 지키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상영작을 수급하고, 영화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운영을 안정화시키는” 게 그의 목표다.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영화제의 산업적 기능을 강화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영화인들이 찾고 싶어 하는 영화제로 거듭나려는 포부도 강화했다. “마켓 기능을 했던 기존의 아시아 판타스틱영화 제작네트워크(NAFF)에 코리아나우, 메이드인아시아, 뉴미디어 세 개의 인더스트리 프로그램 더한 것”도 그래서다.

무엇보다 상영관이 부천시 상동과 중동에 집중됐던 예년과 달리, 부천역(CGV 부천역 7개관)을 포함시켜 상영관을 부천시 전역으로 확대한 것도 “보다 많은 부천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화제 기간 동안 CGV 부천, 부천시청, CGV 부천역을 잇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부천시의 대중교통 또한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개막식을 하루 앞두고 준비는 다 끝났다. 일기예보도 맑음이다. 그럼에도 최 집행위원장은 긴장을 놓지 않는다. “한여름이 부천의 색깔이긴 한데 관객과 게스트들이 즐길 수 있을 만큼만 더웠으면 좋겠다. (웃음)”

글 김성훈 · 사진 박광희 객원기자



7호실

Room No. 7

이용승 | 한국 | 2017년 | 94분 | 개막작

7.13 LS 19:30
7.14 CH 14:00

한때는 화려했지만 지금은 유동인구가 적은 상권. 두식(신하균)은 이곳에서 DVD방을 운영하고 있다. 장사가 잘되기는커녕 매일 한두 커플 정도만 찾는데 그쳐 몇 달째 전기세를 못 내는 형편이다. 아르바이트생 태정(도경수)에게 가게를 맡긴 채 밤마다 대리기사 일을 하러 나가는 것도 그래서다. 태정은 혼자서 음악을 공부하며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두식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두식에게 몇 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다. 두식은 하루라도 빨리 가게를 넘기고 싶지만, 천정부지로 솟은 권리금과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낡은 가게에 관심을 보이는 이 하나 없다. 태정은 어떤 사건에 엮이면서 어떤 물건을 DVD방 7호실에 숨긴다. 두식은 중국동포 출신인 한옥(김동영)을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다. 어느 날, DVD방에 어떤 사고가 벌어지고, 두식은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7호실에 무언가를 숨긴다. 줄지에 7호실에 두식과 태정의 각기 다른 비밀이 공존하게 된다.

전작 <10분>(2013)에서 청년세대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문제를 그려냈던 이용승 감독의 신작 <7호실>은 자영업자의 분투기와 난민이나 마찬가지로 청년세대를 그린 작품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부동산 시장의 말만 듣고 전세금을 빼내 낡은 건물의 DVD방에 투자한 두식에게 마땅한 돌파구는 없어 보인다. 가게를 팔고 싶어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빛만 매일 늘어날 뿐이다. 학자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월급을 못 받는 탓에 거의 유일한 재산인 노트북을 팔아야 하는 태정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영업자 두식과 궁지에 몰린 청년세대 태정, ‘을’의 삶을 살고 있는 두 남자가 7호실을 두고 서로의 비밀을 들키지 않으려고 사투를 벌이는 풍경은 불평등한 한국사회의 한 단면 같아 안타깝고, 씁쓸하다. 신하균은 돈 때문에 매사가 신경질적인 두식을 안정적으로 연기하며 극을 이끌어간다. 도경수가 맡은 태정은 돈은 없어도 눈빛은 살아있는 청년인데, 그 모습이 마치 그의 전작 <카트>(2014, 감독 부지영)의 태영(도경수)이 지란 모습 같다.

김성훈

■ 갑갑한 공간과 조직을 생생하게 그려낸 <10분>과 달리 <7호실>은 블랙코미디를 가미한 스릴러에 가깝다.

A Little Bit about BiFan

July in South Korea means humidity, heavy rains, and the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A little bit about Korean festivals

Korea is home to many film festivals, but there are three big ones: The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and then the other two.

A little bit about Bucheon

Bucheon is a suburban, satellite city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just outside of Seoul. The city has a population of about 850,000 people.

Several decades ago, citizens of Seoul were subject to a curfew. Bucheon was exempt from this curfew, so people would head there to keep the party going. After some time, Bucheon developed a reputation for its love motels and love noraebangs (Korean singing rooms).

By the time the 90s rolled around, Bucheon had become a wealthy city and it wanted to shake its bad reputation. It looked to the Japanese city of Yubari for inspiration.

Yubari, a mining town, had started a genre festival that had become very popular and had made the town an international destination. Bucheon decided to team up with Yubari to produce its own festival. The first edition took place in 1997, and the festival has seen continuous growth ever since.

In addition to BiFan, Bucheon is also home to 2 other large festivals: BIAF (Bucheon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and BICOF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A little bit about the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Bucheon is the largest genre film festival in Asia. If you like horror, science fiction, and action, BiFan is your best chance to see it all in one place. This year the festival will show 289 films from 58 countries. The festival screens films at venues all over the city of Bucheon but most of the screens are located near Bucheon City Hall where there is a large screen theater as well as a smaller venue. Nearby are two department stores that offer their CGV movie theaters during the festival. Since last

year, to allow more of the local Bucheon community to experience the festival, additional screening venues were added at the Songnae Solan Art Hall, the Sohyang Hall at the Sosa-gu office, and the Ojeong Art Hall at the Ojeong-gu office. Things are pretty spread out but don't worry, there's a shuttle.

A little bit about the festival's programming

2017 is the 21st edition of BiFan. This year the festival brought in additional programmers to increase the festivals already great selection and quality of films. The programming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Bucheon Choice (for international competition), Korean Fantastic (local genre films in competition), World Fantastic Red (hard core genre films), World Fantastic Blue (comedy and fantasy genre films), Family Zone (films for the whole family, Forbidden Zone (controversial and edgy films), Fantastic Short Films (shorts), and Special Programs (retrospectives and other special cinema events). The festival also offers midnight screenings on weekends.

A little bit about the festival's Industry Events

In addition to the festival, BiFan also has events for filmmakers and industry professionals. In 2016, BiFan organized the "BiFan Industry Gathering" or B.I.G. The BiFan Industry Gathering features 4 sections. NAFF (the 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 Korea Now, Made in Asia, and New Media. Korea Now focuses on helping local filmmakers to overcome the challenges of the Korean film industry, Made in Asia is geared towards the larger Asian film production industry, and the New Media section looks at new technology in storytelling NAFF is host to BiFan's "It Project Market" where selected film projects are invited to meet with industry professionals. NAFF also manages the "Fantastic Film School", a talent program that works to develop genre filmmakers in the Asia region. Several students from the Fantastic Film School have found success at BiFan and many projects from the It Project Market have gone on to be shown at BiFan later.

Christopher Weatherspoon

<The Autopsy of Jane Doe>

André ØVREDAL | UK, USA | 2016 | 86min
World Fantastic Red

Timothy (Brian Cox) and Austin (Emile Hirsch) Tilden are a father and son team that run a morgue. Austin's shift has ended and he has a date with his girlfriend, but just before heading out, the police bring in the body of a Jane Doe (a name given to victims found without identification) and Austin decides to ditch his date and stay and help his dad with one last cadaver.

Thus begins the rather mundane, yet informative autopsy that takes up the first half of the film. At first, Jane Doe appears to be the victim of a brutal assault, but as Tim and Austin literally dig deeper, they notice strange irregularities, and begin to wonder, in what horrific way did Jane Doe really die.

Norwegian director Andr? Øvredal's first English language film "The Autopsy of Jane Doe" does a solid job of maintaining a slow boil as he slyly reveals the true, unholy secret of "Jane". The movie has an unsettling, creepy atmosphere and is rather minimalist with its small cast and eery score.

One of the movie's most unique aspects is the dead body of the Jane Doe, "portrayed" by Irish model Olwen Kelly. Though naked and lifeless, the cadaver's presence is always felt, even when not on screen, and viewers are constantly on edge wondering if it will ever move.

You'll have to watch the film to find out that answer.

Christopher Weatherspoon

"I Make Strange Films"

<Dearest Sister> Director Mattie Do



Lao horror feature "Dearest Sister" has been making waves since it debuted on the film festival circuit, winning multiple awards and even getting distribution. The film's director, Mattie Do, took some time to share some thoughts with us.

Chris: First off, congrats on your film "Dearest Sister" being selected for competition.

Mattie: Aww thank you! I feel so honored.

Chris: Why was this story important to you?

Mattie: This story was mega important to me. I wanted to break the stereotypes and weird, antiquated perceptions that people have about Asian women. Also I wanted to take the hidden lives of Laotian people and put them on the screen.

Chris: With your recent successes, have things become easier for you in the film industry?

Mattie: No, i think things have become harder. I make strange films, but now that I have experienced some success, people are expecting me to make more mainstream films, or to make films that fit into their ideal mold of what "Asian" cinema should be. I want to continue to make Lao cinema and tell Lao stories.

Chris: So what is next for you?

Mattie: My next project, "The Long Walk" is being produced with Annick MAHNERT from Screen Division and Justin Diemen and Aurora Media. It's a science fiction/thriller set in rural Lao. It will be the first Singaporean production in Lao.

Chris: When will you start that?

Mattie: Well we're set to go into production this fall when the weather in Lao is a little better for shooting.

Christopher Weatherspoon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다. 개막식을 위해 설치한 무대 장치를 점검하는 스태프들. 개막식은 13일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오후7시30분부터 열린다. 개막작은 이용승 감독, 신하균, 도경수 주연의 <호실>.



하이, 치즈! 부천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페스티벌의 열기를 미리 담고 있다. 함께 사진을 찍는 자원활동가들은 영화제 기간 내내 부천 일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만날 얼굴들.

BiFan sketch

BIFAN 출격 준비 완료~! 제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 D-1. 막바지 준비로 분주한 부천시청 앞 잔디광장의 풍경을 담았다. 더운 날씨, 바쁜 와중에도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축제 의 시작을 실감나게 하는 스태프와 자원활동가들. 그들의 동선을 따라가 보았다.

글 이수연 · 사진 백종현, 박광희 객원기자

BIFAN을 부탁해~! 부천시청 앞에 설치된 BIFAN의 공식심볼 '환상세포'(Cell of Fantasy). 디자인스튜디오 프로파간다가 작업한 올해 공식 포스터에도 등장, 관심을 모았다.



이벤트를 위해서라면, 한낮 더위도 잠시 접어둔다. 자원활동가들이 부천시청 앞에서 이벤트 부스를 설치하고 있다. 14일부터 16일까지, 가족, 친구 모두 함께 시청 앞 잔디 광장을 찾아라. 매일매일 다양한 이벤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ORIENTAL BLOOM

J. ESTINA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대한민국~

행복의 날까지 ~

힘내라 코리아~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당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찾아와도 NH농협은행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NH농협은행이 변함없이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100% 국내자본은행 | 4년 연속 사회공헌 1위 은행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